



## 개신교 ... 또 사찰 땅밟기

### 7대 종교인 종교평화선언... 종단협 '종교윤리법' 제정 촉구

최근 봉은사, 동화사, 미안마 등에서 땅밟기 예배를 해 물의를 빚은 개신교도들이 이번에는 울산지역 사찰 4곳에서 땅밟기 예배를 하고 주지스님과 불자들을 비방하는 글과 사진을 게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혜경·손안식)의 사이트 신고코너에 11월 1일 한 네티즌이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서울, 대구에 이어 울산에서도 확인된 땅밟기 예배로 개신교의 계획적·조직적인 불교편협 움직임이 포착된 가운데,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의장 자승·조계종 총무원장)는

2일 긴급상임이사회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종단 대표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가칭)종교평화윤리법 제정을 촉구하고, 종교지도자들에게 종교인 평화선언과 종교인 윤리규범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종단협의 제안에 4일 대전 유성에서는 종교인교류대회가 열려 종교평화선언문을 발표했다. 행사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소속 전국 7대 종교인 180여 명은 종교간 대화와 협력에 앞장서고 종교평화를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다짐했다. 종교인들은 선언문에서 "나를 비

워 너를 품는 '사랑' 과, 이웃의 기쁨은 늘리되 아픔은 줄이는 '자비' 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최고의 가르침이다. 내가 서고자 할 때 남을 위해 종교인 평화선언과 종교인 윤리규범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종단협의 제안에 4일 대전 유성에서는 종교인교류대회가 열려 종교평화선언문을 발표했다. 행사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소속 전국 7대 종교인 180여 명은 종교간 대화와 협력에 앞장서고 종교평화를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다짐했다. 종교인들은 선언문에서 "나를 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개신교의 불교편협에 종단협이 법령 제정 촉구를, KCRP가 평화선언을 하는 것에 즈음해, 불교환경연대 지도위원 법음 스님은 1일, "개신교의 불교편협에 조계종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개신교 지도자들에게 불교편협 방지와 관련해 문서로 다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개신교인들의 사찰 땅밟기 기도와 선교 행태는 현 정권의 종교차별 행태를 답습하고 용기를 얻은 행위의 결과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조동섭·노덕현 기자**

##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제22회 포교대상 선정

한마음선원 조실 대행 스님이 제22회 포교대상(종정상)에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혜총)은 11월 5일 포교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22회 포교대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



대행 스님



일면 스님



류진수



홍사성

포교원은 대행 스님의 수상 이유에 대해 "스님은 현대불교신문 창간, 불교서점 개설,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 창설, 심성과학연구원 설립, 불교인터넷방송국 HBTV를 개설 등 매체를 통한 포교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대행 스님은 어린이·청년·거사포교활성화를 위해 각종 불교행사의 적극 동참을 통한 생활 속의 불교를 실천해 왔다. 또, 광명선원을 비롯한 15개 국내지

원 및 뉴욕지원 등을 설립해 전법포교의 의지를 활발히 펼쳐왔다. 이날 포교원은 공로상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불암사 주지), 류진수 부산시불교신도회장, 홍사성 前 불교신문 편집부장, 이용부 대한불교진흥원 이사 등 4명을 선정했다. 일면 스님은 군종특별교구 주지를 재임하면서 군포교 발전에 전력하고, 현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으로 장기기증, 결혼사업, 환우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다. 류진수 부

산시불교신도회장은 부산불교방송국, 부산불교신도회관 건립 등 부산 불교활성화에 전념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홍사성 씨는 불교인론, 출판분야에서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는 물론 후진양성에 힘써왔으며, 이용부 이사는 전통신찰총서 등 10여종의 사지를 출판하고, 어린이 청소년 권장도서에도 불교관련서적을 포함시켜 불교문화를 널리 알렸다. 시상식은 17일 오후 2시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봉행된다. **이상연 기자**

## 자승 총무원장, 안정 쫓아 소통한 1년

### 화쟁위 출범 등 목소리 모아 도약의 기반 다져

11월 5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제33대 집행부는 서울 흥재동 개미마을에서 연탄과 쌀을 전하는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제33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만 1년째 되는 날 열린 이 행사는 자승 총무원장의 지난 행보를 회향하고 새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같은 날, 스님은 이들을 밝히지 않은 독지가가 전달했다며 2억 원을 육군훈련소 군법당 건립기

금으로, 5000만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금으로 전달했다. 이 같은 자승 스님의 자비나눔 행보는 지난해 취임 당시 첫 공식행사를 울산참사 현장 방문으로 시작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총무원장자승의 울산참사 현장 방문은 사회 양극화와 이에 따른 계층갈등을 단적으로 드러낸 현장을 찾아 불교와 사회와 소통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후에도 스님은 노인복지관, 이주노동자, 교도소 등을 찾아 자비의 나눔을 통한 소통을 실천해 왔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소속 종책모임인 화엄회를 비롯해 보림회, 무량회, 무차회 등 4대 종책모임간 연대를 통해 당선됐다. 정책모임간 연대는 집행부 구성에서부터 정책모임간 공생 구도로 반영됐다. 제33대 집행부는 핵심공약과 추진사업들을 로드맵으로 만들었다. 승려노후복지제도, 인사고과제

도 등은 과거 집행부에서도 수차례 논의·검토돼 왔던 과제들이다. 종단 현실에 부딪혀 차마 실행되지 못했던 과제들을 자승 스님은 실천했다. 사찰토지처분금 목적사업 활용, 승려개인명의 재산사후 종단 출연, 승려교육 제도 개혁, 해외특별교구 출범 준비 등 지난 1년간 다수의 개혁입법이 추진됐다. 화쟁위 출범을 맞아 종단과 종단, 종단과 사회간 소통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사찰음식 등을 소재로 한국불교의 세계화도 강력히 추진했다. **(관련기사 3면) 조동섭 기자**

## 새 연재 정찬주의 행복한 과학의 시대에 한국불교는 무엇인가

글을 시작하며

비구름이 남야 형산의 산허리를 감고 있다. 그 기세는 순례자들에게 천 년 전 형산의 일을 보여주지 않을 것처럼 도도하기까지 하다. 선승들이 깨달음의 문턱에서 은밀하게 주고받는 대화를 밀어(密語)라고 했던가. 만리 길을 떠난 순례자들은 폭포처럼 격렬하고 불멸과 같이 따라사한 선사들의 밀어와 조우하면서

신심을 낸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정진의 힘을 받는다. 옛 선사를 만나 스스로 제자 되기를 청하고 여러 석음의 허물을 벗는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깨달음의 꽃이 던져진 구도의 길을 쉬지 않고 걷는 것이리라. 형산의 정수리, 축융봉으로 난 산길은 직립한 삼나무 숲 사이로 흐릿하다. 미니버스가 가파른 산길을 힘센 수고우(水枯牛)처럼 기세 좋게 오른다. 비구름이 한사코 눈앞을 가

리며 막아서지만 문명의 이기(利器)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문득, 고요한 형산으로 오기 전에 들렸던 상해의 시가지가 떠오른다. 상해에서 하룻밤 머물며 보았던 상해엑스포의 잔상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엑스포란 인류가 이룩한 과학문명의 성과를 함께 즐기려고 모인 화려한 축제가 아닐까. 참가한 나라마다 과학의 시대를 자축하고 뽐내듯 화려한 축포를 쏘아올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관에서 중국관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안국선원 순례자 일행은 당황하지 않고 비를 피해 차분하게 벤치에 앉았다. 바로 예전에 없던 수불스님의 야외법석이 펼쳐졌다. 주제는 정해진 바 없었으나 자연스럽게 '과학의 시대에 한국불교는 무엇인가'로 흘렀다. 스님의 법문을 듣는 동안 나는 무례한 상해의 소나비를 오히려 고마워했다. 일찍이 미래의 종교는 불교가 될 것이라고 단언한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불교 찬가'도 다시 음미했다. ▶19면에 계속

## 낙동강 마애불

### 중요문화재 지정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최근 경북 의성군 낙동강살리기 사업 공사 현장서 발견된 '의성 생소리 마애보살좌상'을 10월 29일 중요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 마애보살좌상에 대한 적절한 보존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우선 중요문화재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려 초기 양식의 이 마애불은 공사 관계자가 고의로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조동섭 기자**

## 시령

신규 박기범 (명) 취재부 기자  
경력 11월 2일부  
천진영 (명) 취재부 기자  
수습 11월 8일부  
승진 조동섭 (명) 취재부 차장  
11월 1일부

**노래하며 배우는 부처님 마음**

우리 마음속에 불성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생활 속의 마음공부 이야기들을 노랫말로 만들어 주세요

**【윤 모 아】**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 좋게 쉽고 밝은 노랫말로 순수 창작 작품이어야 합니다.  
·출품작은 1곡 이상이어야 하며, 다수의 작품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윤모기간 및 시상】**  
·접 수 마 감 : 2010년 11월 31일까지  
·수상작 발표 : 12월 19일 (본원 정기법회에서 시상)

**【장 학 역】**  
·대 상 (1명) :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2명) : 상금 50만원  
·우 수 상 (3명) : 상금 30만원 ·장 려 상 (10명) : 상금 10만원

\* 응모방법과 참고사항은 [www.hanmaum.org](http://www.hanmaum.org) 에서 확인

## 2011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수험생 가족이 대행스님께 길을 묻다

스님, 어떻게 하면  
아이가 대학입시를 잘 볼 수 있을까요?  
부모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마음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한테 있는 자기 보배를 응용을 못하고 바깥으로 고달리면서 자꾸 '애가 무엇이 모자라는데, 그러니 누구한테 무엇을 좀 물어봐야 하는데' 이러기가 쉽습니다. 저 나무들이 뿌리 없이 사는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이끌어줄 수 있고 지혜를 줄 수 있는 바로 그 '참나'라는 보배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위축이 돼서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다면 자기 몸 속의 의식들도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당신이 나의 근본이니까 저 애가 목적까지 운전을 잘 해 나가게 하는 것도 당신 뿐이다.' 하고 자기 근본 마음에 믿고 맡긴다면 보이지 않는 능력까지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맹목적으로 믿는 데가 아니고 또 기복으로 믿는 데도 아닙니다. 단지 멋진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견게 하기 위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치를 자녀들에게 일러 주십시오. 자기 마음의 근본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가 가야 자기 뿌리를 진짜로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